

KBS

2020 FEBRUARY

SYMPHONY ORCHESTRA



제751회 정기연주회

거인의 태양 Titan Nova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네 개의 마지막 노래, TrV 296

R. Strauss / Vier letzte Lieder(Four last songs), TrV 296

말러 /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G. 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2

국민의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2020 FEBRUARY

KBS SYMPHONY ORCHESTRA

calendar

초청

2/13 목요일

LG U+ VR Classic Mate
with KBS교향악단

10:00 베뉴지홀

초청

2/19 수요일

한국전쟁 70주년 다큐멘터리 -
<D선상의 아리아> 배경음악 녹음

10:00 KBS스튜디오

정기

2/27 목요일

KBS교향악단 제751회 정기연주회

KBSSO 751st Subscription Concert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정기

2/28 금요일

KBS교향악단 제751회 정기연주회

KBSSO 751st Subscription Concert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 SYMPHONY ORCHESTRA CONCERT

제751회 정기연주회
거인의 태양 TITAN NOVA

지휘 디르크 카프탄
소프라노 황수미

Concert Manager 유정의

주최/주관 (재)KBS교향악단

티켓가격 R석 7만 / S석 5만 / A석 4만 / B석 3만 / C석 1만

예매 서울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예술의전당 02-580-1300

안동 :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재)KBS교향악단 02-6099-7400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54-840-3600

2/27 목요일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2/28 금요일 20:00 예술의전당콘서트홀



program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네 개의 마지막 노래, TrV 296 (24')

R. Strauss / Vier letzte Lieder(Four last songs), TrV 296

1. Frühling(Spring) (봄) (5')
2. September (9월) (5')
3. Beim Schlafengehen(At bedtime) (잠 들기 전에) (6')
4. Im Abendrot(At Sunset) (저녁노을) (8')

말러 /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53')

G. 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 I. Langsam schleppend (느리고 완만하게) (15')
- II. Kräftig bewegt (힘찬 움직임으로) (8')
- III. Fei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장엄하고 위엄있게, 너무 느리지 않게) (12')
- IV. Stürmisch bewegt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 (18')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말러가 태어난 1860년, 음악계에서는 브람스와 바그너가 태양처럼 군림하고 있었으며, 20대의 청년 차이콥스키를 포함해 세계의 음악계는 후기 낭만주의에서 국민주의 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말러는 장 폴 프리드리히 리히터의 소설 <거인>을 모티브로 하는 첫 교향곡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교향곡 창작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말러는 베토벤의 그림자를 두려워했다. 베토벤을 의식해서든 아니든 스물여덟 청년 말러는 첫 교향곡에서 거인의 걸음걸이를 우습게 풍자해 보였고, 2020년의 지휘자 디르크 카프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말러의 1번 교향곡 '거인'으로 당당하게 거인의 그림자에 맞선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지나쳐 왔다네. 넓고 고요한 평화여, 저녁노을 속에 우리는 가라앉으니, 어쩌면 이것이 죽음인가?' 소프라노 황수미가 노래할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스물여덟 젊은 말러의 패기와는 정반대로 여든넷이 된 낭만주의의 마지막 주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만년의 작품이다.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그가 남긴 200여 곡의 방대한 가곡 중에서도 15편에 불과한 오케스트라 반주의 작품이기에 더욱 귀하다.

Dirk Kaftan

디르크 카프탄



디르크 카프탄은 2017년 여름부터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와 본 오페라 하우스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19~2020시즌에는 다수의 공연 외에도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와 만프레드 트로안의 <Ein Brief (A Letter)>의 초연을 지휘한다. 마틴 그루빙어, 라픽 샤미 등의 아티스트들과 꾸준히 작업하고 있고, 가브리엘라 몬테로, 괴츠 알스만, 킷 암스트롱과의 협연을 앞두고 있다. 그는 또한 본이 배출한 최고의 작곡가인 베토벤의 해를 기념하는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앞장서서 활발하게 이끌고 있다.

카프탄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며 베토벤 교향곡을 비롯해 노노의 <불관용 1960(Intolleranza 1960)>과 레하르의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The Merry Widow)>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린츠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모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하노버 주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트리스탄(Tristan)> 등 전 세계 유명 콘서트홀에서 환영받고 있다. 빈 국립 폭스오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코펜하겐 덴마크 왕립 오페라하우스의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으며,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도 다수의 공연을 지휘하고 있다. 2016년에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미로슬라프 스톨스카의 “Make No Noise”를 지휘하기도 하였다.

카프탄은 오케스트라와 활발한 협연을 하는 한편, 그가 이끄는 앙상블과 오케스트라와의 연주에 늘 심혈을 기울여 동료 연주자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는 지휘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아우크스부르크와 그라츠에서 음악감독을 역임할 때까지 줄곧 이러한 철학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9년 발매한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와의 베토벤의 <에그몬트(Egmont)> 초연 음반이 큰 호평을 받는 등 음반은 청중과 비평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라츠와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오페라 <먼 곳으로부터의 소리(The Distant Sound)>, <예누파(Jenufa)>, <그리스 수난곡(The Greek Passion)> 등을 감독하였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힘을 모으고자 하는 그의 신조는 본의 음악감독으로서 올리는 무대들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뮤지션 그리고 청중과 항상 활발히 소통한다. 그에게 음악은 삶의 필연이며, 사유와 물입의 원동력이다.

Sumi Hwang

황수미



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황수미는 독일 본 극장(Theater Bonn)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와 극장에서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부터 신영옥 콩쿠르 2위, 세종음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국립오페라단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황수미는 독일 유학 중 ARD 뮌헨 국제 음악 콩쿠르 2위, 멘델스존 콩쿠르 1위, 아넬리제로텐 베르거 콩쿠르 우승 등 각종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뮌헨 국립음대 재학 중 도니제티 오페라 <미치광이 대소동>의 주역 노리나를 맡았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Ulf Schirmer)와의 공연으로 SZ Zeitung 신문사에서 `금주의 스타`로 뽑히기도 하였다.

2014년 여름, 독일 Bad Kissinger Summer Festival에서 뮌헨 필하모닉과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자네타 역으로 갈라 콘서트를 가졌으며, 2015년 같은 페스티벌에서 영국 BBC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14년 연말 독일 방송국 ZDF의 주최로 독일 대통령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 지휘자 파트릭 랑에가 이끄는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다. 국내에서는 정명훈 지휘의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제69주년 광복절 기념 연주에도 출연했으며, 2016년에는 프랑스의 대표 체임버 앙상블인 '앙상블 마테우스'의 첫 내한공연에 협연자로 선정되어 국내 4개 도시를 도는 투어를 했다. 2017년 6월에는 역시 헬무트 도이치와 국내 3개 도시를 도는 투어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뽐내며 큰 인기몰이를 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며 주목받았고, 2019년 10월에는 세계적인 가곡 반주자인 헬무트 도이치의 반주로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데뷔 음반을 발매했다.

2020년에는 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와 함께 노르웨이 스타방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의 마르첼리나 역을 공연할 예정이고,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페라와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네 개의 마지막 노래, TrV 296

R. Strauss

Vier letzte Lieder(Four last songs), TrV 296



1948년의 봄과 여름, 84세의 슈트라우스는 스위스에 머물면서 마지막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었다. 당시 슈트라우스는 <네 개의 마지막 노래>를 작곡하면서 그의 생을 되돌아보았다. 평생에 걸쳐 여러 편의 교향시와 오페라를 통해 오케스트레이션과 드라마에 있어 빛나는 천재성을 과시했던 슈트라우스가 명상적이고도 단순한 ‘노래’로써 그의 음악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온갖 세련된 기교와 다양한 오페라 양식을 실험해본 슈트라우스는 결국 만년에 이르러 가장 단순한 ‘노래’야말로 시와 음악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자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네 개의 마지막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 슈트라우스가 선택한 시는 헤르만 헤세의 ‘봄’, ‘9월’, ‘잠 들기 전에’와 아이헨도르프의 ‘저녁노을’이다. 이 네 편의 시는 각기 인생의 특정 시기를 나타낸다. 즉 인생의 봄으로 시작해 가을을 맞이하고 영원한 잠을 준비한 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탄생-성장-쇠퇴-소멸’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슈트라우스의 음악 역시 시의 흐름에 따라 탄생하고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소멸해간다. 그래서 네 곡의 노래를 순서대로 듣고 있노라면 슈트라우스가 그 삶의 마지막 해에 이르러 자신의 일생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헤세의 시를 바탕으로 한 제1곡 ‘봄(Frühling)’은 봄이라는 계절이 나타내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한다. 시인은 “빛을 받으면서 마치 기적처럼 내 앞에 있는 봄”의 신비를 표현하고 슈트라우스는 이 곡 초반부터 화성을 변화시키며 생명이 탄생하는 봄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강조한다.

작곡년도 1948년

초연 1950년 5월 22일, 런던에서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지휘, 키르스텐 플라그스타트의 독창으로 이루어짐

편성 소프라노 독창
플루트3(제3플루트는 피콜로와 겸함), 피콜로, 오보에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3
(제3바순은 콘트라 바순과 겸함),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하프, 첼레스타, 현5부

연주시간 약 24분

제2곡 '9월(September)'에선 봄과 여름의 생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계절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끝자락에 다가선 여름이 조용히 몸을 떠는 9월”이 되면 그 찬란했던 여름의 열기는 점차 수그러들지만 초가을의 햇빛은 아름다움의 절정에 달한다. 슈트라우스는 이 계절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목관과 현악의 환상적인 소리로 표현해내고, 이 노래의 종결부분에서 슈트라우스는 그의 아버지가 연주했던 악기이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악기 혼을 등장시켜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이 곡을 마무리한다.

제3곡 '잠들기 전에(Beim Schlafengehen)'에 이르러 “손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머리는 모든 생각을 거두는 잠들 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마침내 슈트라우스는 ‘저녁노을’ 앞에서 시인의 입을 빌어 “우리는 가라앉으니, 어쩌면 이것이 죽음인가?”라고 조용히 속삭인다. 이 곡에서 슈트라우스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 파울리네에게 결혼 선물로 작곡해주었던 가곡 '내일(Morgen)'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이 곡에는 슈트라우스의 가곡 '내일'에 나왔던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닮은 바이올린 독주가 중간 부분에 등장한다. 마치 영혼이 부유하듯 독특한 감흥을 전하는 독주 바이올린의 가냘픈 선율을 통해 그는 다시금 그의 동반자 파울리네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어렵듯이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다.

제4곡 '저녁노을(Im Abendrot)'은 아이헨도르프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곡에서 슈트라우스는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며 호른을 통해 그가 젊은 시절에 작곡했던 교향시 <죽음과 정화>의 주제를 던지시 내비친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날에 완성한 교향시 <돈 후안>에 태풍 같은 생명력을 불어 넣었던 바로 그 악기 혼을 다시금 등장시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슈트라우스의 곁을 지켜주며 <네 개의 마지막 노래>에서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노래의 종결부는 결코 비극적이거나 처절하지 않다. 두 대의 플루트로 표현된 두 마리 종달새의 노래가 서서히 멀어지며 어슴푸레 사라져가는 종결부는 만족스럽고도 평온한 마지막 순간을 암시한다. 이 곡을 작곡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서로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파울리네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아이헨도르프의 시 속의 “두 마리의 종달새”가 되어 저녁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1949년 9월 8일 그의 별장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었고 그의 부인 파울리네 슈트라우스는 그 이듬해 남편의 뒤를 따랐다.

말러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G. Mahler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말러가 그의 나이 28세가 되던 1888년에 완성한 이 야심 찬 교향곡은 장 폴의 소설 '거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교향곡이 '거인'이라 불리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거인'이란 부제에서 느껴지는 영웅적이고 거대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 교향곡의 도입부는 지극히 여리고 신비로운 소리로 시작한다. 또한 춤곡풍의 2악장은 평범한 서민들의 음악이며, 3악장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장송행진곡과 싸구려 밴드의 시끌벅적한 소리는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듯하다. 또한 4악장 도입부를 장식하는 충격적인 음악은 말러 자신의 설명대로 "상처받은 마음의 절규" 그 자체다. 과연 말러는 이 교향곡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담은 말러의 교향곡 1번은 "교향곡에 대한 풍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말러는 감정을 여과해내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표현법을 통해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운명에 대항하는 거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마도 이 교향곡 속의 '거인'은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운명에 대항하는 말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교향곡 1번을 작곡할 당시 구스타프 말러는 라이프치히 극장 부지휘자로 일하면서 수석 지휘자 니키슈와의 미묘한 기 싸움을 벌이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이프치히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세 사람의 핀토(Die drei Pintos)>의 편곡 판을 1888년 1월 20일에 초연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오페라를 초연한 이후 말러는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말러의 친구 니탈리 바우어레히너에 따르면 말러는 교향곡 전 악장을 "단 6주 만

작곡년도	1884~1888년
초연	1889년 11월 20일, 부다페스트에서 말러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짐
편성	플루트4(제3, 제4플루트는 피콜로와 겸함), 오보에4(제3오보에는 잉글리시호른과 겸함), 클라리넷4(제3클라리넷은 베이스 클라리넷과, 제4클라리넷은 E ^b 클라리넷과 겸함, 제4악장에서는 E ^b 클라리넷과 함께 연주됨), 바순3(제3바순은 콘트라바순과 겸함), 호른7, 트럼펫5 트롬본4, 튜바, 팀파니2,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탐탐,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53분

에 완성했으며 곧바로 이 작품을 지휘하고 리허설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말러는 3년 전부터 이 교향곡의 스케치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고 이 작품에 사용된 음악적 재료 중에는 말러가 1870년대에 작곡한 것들도 있다.

1888년에 말러가 교향곡 1번을 작곡할 당시에 이 곡은 ‘교향곡’이 아닌 ‘교향시’로 완성되었다. 즉 음악과는 별도로 어떤 이야기가 붙어있는 표제적인 관현악곡으로 작곡되었고, 전체 2부 구성의 총 5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다. 그런데 말러의 교향곡 1번이 교향시의 형태로 첫선을 보인 1889년 11월에 부다페스트에서 이루어진 초연이 대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교향곡, 아니 교향시의 자필 악보는 한동안 말러의 서재 속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초연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 말러가 얼마나 실의에 빠졌을지 짐작할 수 있다.

1889년 11월 20일, 부다페스트 필하모닉의 연주회에서는 헝가리 왕립 오페라단의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의 2부작 교향시가 소개되었다. 그때까지 지휘자로서 알려졌던 말러에게는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직접 지휘봉을 잡은 말러는 자연과 젊음의 아름다움을 담은 교향시의 제1부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1부의 세 악장이 연주될 때까지는 초연의 성공은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청중은 매 악장이 끝날 때마다 환호하며 그의 음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민요를 과장한 장송곡으로 변형시킨 2부의 첫 악장에서부터 동요의 기미가 보이더니, 귀를 찢는 듯한 마지막 악장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말러의 절친한 친구 프리드리히 뢰어는 그날의 연주회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청중 대부분은 이 작품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작품의 형식은 새롭고 낯선 것이었다. 특히 비극적 감정을 표현한 강렬한 음향은 진부한 표현에만 익숙한 그들에게 불쾌한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 마지막 악장의 도입부는 너무나 쇼킹해서, 내 옆에 앉아있던 한 우아한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결국 말러는 1893년과 1896년에 이 작품을 개정하여 모든 표제를 생략하고 “꽃” 악장을 삭제해 이 작품을 4악장 구성의 교향곡으로 완성해냈다.



© 1954 M. J. M. Co.
Type 01

말리의 교향곡 제1번의 1악장 ‘느리고 완만하게(Langsam schleppend)’는 느리고 신비스러운 서주로 시작한다. 첫 A음은 자연의 무한함을 나타내듯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1악장의 기본 모티브인 하행 4도 음정(A-E)이 들려오고 군대의 팡파르와 빠꾸기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린다. 이윽고 첼로가 말리의 연가곡 <방향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두 번째 곡 ‘아침 들판을 거닐며’에서 온 주제를 연주한다. 인용된 가곡의 가사 내용은 이렇다.

“아침 일찍 들판 위를 걸었네, 풀잎엔 이슬이 맺히고, 명랑한 새들은 날 보며 이렇게 말하네. ‘안녕, 잘 잤니? 참 아름다운 세상이지?’ 쩡크! 쩡크! 아름답게 빛나네! 기쁨으로 가득한 이 세상!”

2악장 ‘힘찬 움직임으로(Kräftig bewegt)’은 전 악장 가운데 가장 짧지만 이 교향곡을 처음 듣는 관객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만한 친근한 음악이다. 강한 첫 박과 탄력 있는 리듬을 배경으로 하는 떠들썩한 선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처음 들어도 그 주제가 귀에 각인된다. 시골 생활의 원초적인 즐거움을 노래한 듯한 이 음악은 왈츠와 렌틀러를 합쳐놓은 듯한 경쾌한 춤곡이다.

3악장 ‘장엄하고 위엄있게, 너무 느리지 않게(Fei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은 특이하게도 장송행진곡으로 시작한다. 마치 장례행렬이 움직이듯 팀파니의 연주가 시작되면 이윽고 더블베이스 주자가 외로이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선율은 귀에 익은 듯 하나 어딘가 이상하다. 더블베이스 주자는 돌림노래로 잘 알려진 민요 ‘수사 마르틴’(Bruder Martin)의 선율을 장조가 아닌 단조로 연주하면서 우울함과 기괴함을 동시에 표현한다. 더블베이스 솔로로 제시된 이 주제는 전체 오케스트라로 확대되고 갑자기 카바레 풍의 떠들썩한 음악이 끼어든다. 술집에서 연주될 법한 이 떠들썩한 음악은 장송행진곡 풍의 침통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희화화한다. 아마도 3악장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은 하프 연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프 연주에 이어 제1바이올린이 지극히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선율은 말리의 연가곡 <방향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네 번째 곡 ‘그대의 푸른 두 눈동자’에서 온 것이다.

“길가에 선 보리수, 나는 그곳에서 잠을 청했네! 보리수 그늘 아래, 꽃잎들이 나를 덮어주었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사랑과 고통! 그리고 세상과 꿈!”

4악장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Stürmisch bewegt)’의 도입부는 말리 자신의 표현대로 “상처 입은 마음의 울부짖음” 그 자체다. 강렬한 불협화음의 비명으로 시작되는 도입부에 이어 무엇인가 쫓기듯이 내달리는 현악기의 트레몰로, 그리고 이를 꿰뚫는 금관의 반음계적 하행 모티브가 이어진다. 그러나 4악장 도입부의 음악이 무시무시한 만큼 4악장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팡파르는 더욱 감동적이다. 금관악기가 연주하는 위엄 있는 승리의 주제는 박찬 환희를 표현하며 듣는 이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며 교향곡의 박찬 결말을 이끌어낸다.

KBS SYMPHONY ORCHESTRA

KBS교향악단은 1956년 12월 20일 초대 상임 지휘자인 임원식과 창단 연주를 가진 이래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최전선의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정상급의 지휘자들을 거쳤다.

64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해 온 KBS교향악단은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백건우, 조성진, 장영주, 길 사함, 정명화, 미샤 마이스키, 파비오 루이지 등 국내외 최고의 지휘자와 협연자들을 초청하여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는 정기연주회, 시즌 및 주제별로 다채로운 음악적 접근과 청중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초청 및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 이상의 관객과 만나왔다.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에 초청받았으며, 세계 최고의 공연장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직페라인 연주회 등을 통하여 문화외교사절단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위상을 높이는 기록할 만한 성과를 냈다. 또한 여수음악제, 화이트데이 콘서트, 직장인 콘서트, 대학교 특집 콘서트 '힘내라 청춘' 등 친근하고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2020년도에도 차별화된 연주와 신선한 기획을 통해 청중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CEO

박정옥 사장

사무국

Executive

남철우 사무국장

경영관리팀

Administration

손대승 팀장
강길호 차장
유연철 과장
정유진 과장
김가현 비서
정주호 주임

공연기획팀

Concert Planning

손유리 팀장
조병근 과장
유정의 과장
김지민 과장

공연지원 파트

Backstage

장동인 대리
유재식 단원

공연사업팀

Concert & Business

손유리 팀장
김원재 차장
이한신 차장
이미라 대리

제1바이올린

1st VIOLIN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김대훈 **부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플루트

FLUTE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OBOE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CLARINET

손한요 **부수석**
박한

바순

BASSOON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제2바이올린

2nd VIOLIN

고주철 **수석**
임정연 **부수석**
방영호
채은주
노명희
이혜영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호른

HORN

정종진 **부수석**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TRUMPET

정용균 **부수석**
김주원 **부수석**
김승현

트롬본

TROMBONE

박홍배 **부수석**
정다은

비올라

VIOLA

진덕 **수석**
한길리 **부수석**
고은숙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튜바

TUBA

노리히토 우수이

팀파니

TIMPANI

이영완 **수석**

타악기

PERCUSSION

장세나
오지예
매튜 에른스터

하프

HARP

김서원

첼로

CELLO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김희연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DOUBLE BASS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김상훈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객원 수석

플루트 : 안명주
클라리넷 : 채재일
호른 : Jocelyn Willem
트럼펫 : 정태진
트롬본 : Koichiro Yamamoto



CROWN JEWEL
Posturepedic



www.sealystore.co.kr



실리침대

백화점 (64) : 신세계본점|신세계강남점|신세계영등포점|신세계하남스타필드점|신세계고양스타필드점|신세계충청점|신세계센텀시티점|신세계대구점|현대목동점|현대천호점|현대판교점|현대미아점|현대킨텍스점|현대디큐브시티점|현대신촌점|현대김포점|현대충청점|현대울산점|현대문정점|현대울산동점|현대가든파이크점|현대아울렛대구점|롯데본점|롯데강남점|롯데상실점|롯데영등포점|롯데분당점|롯데평촌점|롯데일산점|롯데구리점|롯데수원점|롯데스타시티건대점|롯데노원점|롯데미아점|롯데김포공항점|롯데대구점|롯데상인점|롯데포항점|롯데부산본점|롯데광복점|롯데동래점|롯데동부산점|롯데마산점|롯데창원점|롯데울산점|롯데항동점|롯데군산점|롯데광주점|롯데안산점|롯데광교점|롯데이천점|NC순천점|AK구로점|AK수원점|아이파크몰점|코디센상성점|마리오아울렛점|대백프라자점|갤러리아천안점|갤러리아타임월드점|논현동수면센터점|SSG마린시티점

대리점 (39) : 광주상무점|김해점|달서점|동수원점|동탄점|마산점|마석점|봉담점|서부산점|서인천점|서평택점|송파점|수성점|순천점|신도림테크노마트점|안산점|용인남사점|용인어정점|용인흥덕점|울산상산점|원주점|의왕점|인천남동공단점|일산덕이점|일산식사점|제주점|좌천점|중계건영점|진주점|창원점|천안성정점|청남점|창원점|텍스빌점|평택비전점|포천점|화성점|홍대점

빨간날엔 BC

BC

WE BARE BEARS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혜택

빨간날 혜택이 쏟인다

메가박스

영화 같은 혜택
"나호 무료"

미스터피자

빨간날 치즈처럼
쏟아진 혜택!

SPC해피오더

일리버리
해피하게 할인

타다

VIP VAN 이벤트
최대 20%
청구할인

번개장터

빨간날 번개페이
할인

컬처티켓 1+1

빨간날 인기 뮤지컬,
연극 1+1 혜택

전가맹점 무이자 2~3개월

빨간날 5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혜택



빨간날엔BC 혜택확인
페이북(paybooc.co.kr)에서!

※ 행사 기간 : 2019.02.01~12.31
※ 행사 대상 : BC카드 개인 신용, 체크카드 회원
(법인, 선불, Gift카드 제외 / 혜택별 대상이 다른 관계로 이용 전 반드시 이벤트 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페이북 사이트(paybooc.co.kr)를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납입은 가계 경제에 위헌이 합니다. - 매 신용카드 사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WE BARE BEARS and all related characters and elements are trademarks of and © 2019 Cartoon Network, A WarnerMedia Company. All rights reserved.

후원 가입 안내

후원금은 클래식 문화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입문의 02-6099-7404/7407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084129 KBS교향악단

메세나클럽

Mécénat Club

구분	기간	티켓 제공사항	기타 예우사항
1억원 이상	평생	R석 4매/매회 (정기, 기획)	
3천만원	10년	R석 4매/매회 (정기,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너스 클럽(KBS 바흐) 제공 혜택 포함 • 가입기념 선물 및 감사패 증정
1천만원	5년	R석 2매/매회 (정기, 기획)	

아너스클럽

Honors Club

구분	기간	티켓 제공사항	기타 예우사항
KBS 바흐 5백만원		R석 2매/매회 (정기,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제공 혜택 포함 • 티켓 추가 구매 50%할인(최대 4매)
KBS 헨델 4백만원		R석 2매/년 7회 (정기)	
KBS 하이든 3백만원		R석 2매/년 4회 (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차르트 제공 혜택 포함 • 공연장 무료주차권(공연당 1매) • 예당 VIP룸 사용 시 서비스 제공
KBS 모차르트 2백만원	1년	R석 2매/년 3회 (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토벤 제공 혜택 포함 • 티켓 추가 구매 40% 할인(최대 4매)
KBS 베토벤 1백만원		R석 2매/년 2회 (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프로그램북 제공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 연주회 초대 • 프로그램북, 홈페이지 명단 게시 • 오프리허설 참관 기회 제공 • 티켓 추가 구매 30% 할인(최대 4매)

이사회

이사장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대표이사 회장

감사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상무

이사

김종립 지투알 고문

정진학 유진기업 사업총괄장 사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도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도경 KBS 시청자센터장

이재우 KBS 예능센터장

국은주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메세나클럽

Mécénat Club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구자용 (주)E1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 (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주) 부회장
 김태근 양지프라임 회장
 박선주 법무법인(유) 산경 대표변호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부 한웰그룹 다이소아성산업 회장
 안국약품(주)
 오석송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유재찬 서울장수(주)사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승 평화정공 사장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총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Superworld교역(주) 회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회장
 한준호 (주)삼천리 회장

아너스클럽

Honors Club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주)미디어소풍
 (주)제삼영상
 김선림
 김옥영 김옥동
 김종수
 김혜진
 성낙현
 이영숙
 이정진
 정성주
 홍숙경

우리 시대, 우리 곁의 베토벤

글. 권고든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erliner Philharmoniker)가 2000년에 녹음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듣고 필자는 클래식 음악도 21세기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지 이 전집이 21세기를 코앞에 둔 2000년에 발매됐기 때문은 아니다. 아바도가 베렌라이터(Barenreiter) 에디션으로 연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드인뉴스> 권고든의 '곧은 클래식')

21세기의 베토벤

베렌라이터 에디션이란 베렌라이터 출판사의 편집자 조너선 델 마르(Jonathan Del Mar)가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해 편집한 것이다. 베렌라이터 에디션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연주(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바로 작곡가가 살아있던 당시의 연주 양식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바도의 일련의 베토벤 교향곡 연주는 빠르고 날렵하다. 편성도 작은 편이다.

이른바 '아바도 신 전집'이라 불리는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연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중 3악장에서 끊지 않고 4악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여기서 2분음표 두 개와 점 2분음표 한 개로 이뤄진 상승 음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전의 연주 대부분은 이 상승 음형의 음가(音價)를 길게 연주해 극적으로 연주하곤 했다. 하지만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에선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부여된 음가대로만 연주한다.

사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반이 베렌라이터 에디션을 사용한 최초의 연주는 아니다. 이보다 2년 전인 1998년 데이비드 진먼(David Zinman)이 스위스 톤할레 오케스트라(Tonhalle Orchestra Zurich)를 지휘해 녹음한 음반이 베렌라이터 에디션을 활용한 최초의 녹음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비로소 2000년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반을 듣고 클래식 음악이 21세기로 향하고 있다고 느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바도의 음반은 베를린 필하모닉이 상임지휘자와 작업한 전집이기 때문이다.

베를린 필하모닉이 상임지휘자와 작업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규정짓는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카리안(Herbert von Karajan)의 경우엔 60년대부터 약 10년을 주기로 장소와 매체를 달리해서 3종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내놓은 바 있다. 카리안은 60년대엔 베를린의 예수그리스도교회에서의 녹음을 발매했다. 70년대엔 1963년 개관해 음향이 자리 잡은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서, 80년대엔 영상물로 각각 발매함으로써 시대의 흐름과 최신 녹음기술을 반영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내놓은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새 시대 새로운 이정표였다. 그가 세운 이정표를 따라 베르나르드 하이팅크(Bernard Haitink)/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ondon Symphony Orchestra)(2006, LSO), 리카르도 샤이(Riccardo Chailly)/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orchester Leipzig)(2008, DECCA) 등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샤이의 전집은 베토벤 시대의 메트로놈 표기를 대부분 그대로 적용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Ludwig van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 1933~2014)

베토벤이 변하면 클래식이 변한다

베를린 필하모닉이 상임지휘자와 함께 작업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 베토벤 교향곡을 넘어 클래식 음악계 전반에 걸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은 베토벤이 후대의 음악가들에게 미친 영향과 관계가 있다.

먼저 브람스를 예로 들어보자. 지휘자 한스 폰 뷔로우(Hans von Bulow)가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가리키며 “드디어 우리는 베토벤의 제 10번 교향곡을 얻었다”고 했던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이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후 후대 음악가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다. 브람스는 친구인 지휘자 헤르만 레비(Hermann Levi)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거인이 내 뒤로 뚜벅뚜벅 쫓아오는 소리를 항상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게. 그 기분을 자네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걸세.” 브람스 역시 베토벤의 그림자에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브람스가 뚝심 있게 독일 음악의 전통을 이었던 반면, 베를리오즈는 <환상 교향곡>과 같은 표제가 있는 교향곡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디뎠으며, 리스트는 1850년대에 ‘교향시’란 새로운 장르로 베토벤의 그림자에 빠져나갔다.

베토벤 이후 교향곡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음악가는 바그너였다. 그는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접하고 교향곡이란 분야에서 더 이상 새로움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대신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의 4악장에서 보여준 음악과 언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 결과 음악과 문학이 긴밀하게 결합한 악극(Musikdrama)이 탄생했다.

베토벤이 후대 음악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음악적 형식이나 장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베토벤을 거치면서 교향곡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작곡가의 예술적 자아와 철학을 담아내는 그릇

“

베토벤 교향곡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규정짓는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2020년 KBS교향악단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내 연주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베토벤 교향곡을
다루고 있다.

”

Beetho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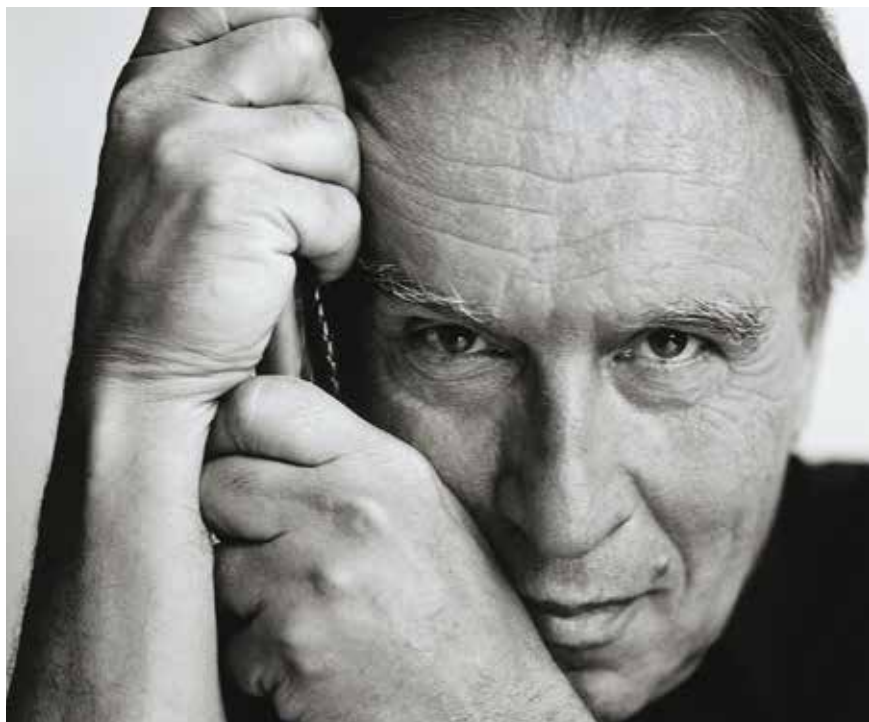
로 변모한 것이다. 베토벤으로 인해 교향곡의 성격이 바뀌었고 덩달아 관객들의 음악을 듣는 자세도 변하기 시작했다. 작곡가가 전하는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향곡이 유희를 넘어 예술의 지휘를 획득한 것이다. 어쩌면 베토벤 이후의 음악가들을 누르고 있던 중압감은 여기서 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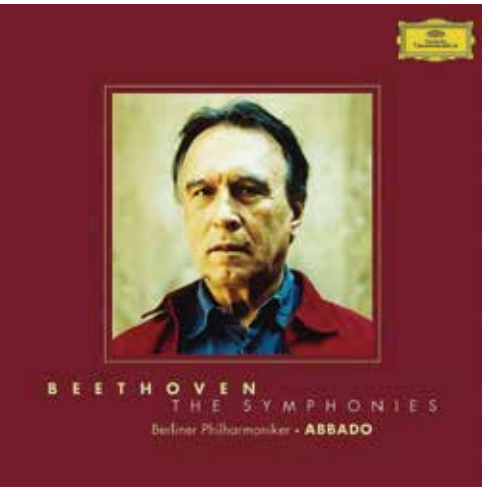
우리 시대, 우리 결의 베토벤을 경험하자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이 새로운 시대의 베토벤 상(像)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공교롭게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다. 올 한해 우리는 다양한 베토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KBS교향악단이 선사하는 일련의 베토벤 교향곡 연주는 우리의 눈길을 끈다.

KBS교향악단은 객원지휘자 체제로 2020년을 맞았다. 지난해 2020년 KBS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공석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2020년 정기연주회 라인업이 공개되자 걱정보단 기대가 앞섰다.

아바도는 특유의 담백하고 투명한 사운드로 베토벤 교향곡 해석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낸다.





2000년 발매된 아바도/베를린 필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음반

이번 시즌 KBS교향악단은 베토벤 교향곡 제3·5·6·7·9번을 연주한다. 아울러 피아노 협주곡 제1·3·5번,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선사한다. 여기서 우리 객원지휘자들과 협연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753회 정기연주회부터 살펴보자. 이날 연주회의 지휘봉은 레너드 슬래트킨(Leonard Slatkin)이 잡는다. 프로그램은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이다. 리듬의 대향연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 곡을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음악감독, BBC 심포니의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경륜의 지휘자 슬래트킨이 들려주며, 앞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파질 세이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756회 정기연주회에선 브램웰 토베이(Bramwell Tovey)가 지휘자로 단에 올라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제임스 에네스(James Ehnes)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토베이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2018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지휘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밴쿠버 심포니를 18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어 제757회 정기연주회는 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Khatia Buniatishvili)가 무대에 올라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과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한다. 정명훈은 지난 2016년 빈 필 하모닉의 내한 연주회에서 같은 곡을 화사한 음색과 여유로운 템포로 선사했다. 이번 KBS교향악단과의 연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부니아티쉬빌리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중 하나로 열정적이 타건을 선사할 예정이다.

동갑내기 거장 한스 그라프(Hans Graf)와 엠마누엘 액스(Emanuel Ax)가 제758회 정기연주회에서 만나 베토벤 교향곡 제5번과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을 들려준다. 그라프는 거장 첼리비다케(Sergiu Celibidache)와 지난해 11월 타계한 마리스 안손스의 아버지 아르비드 안손스(Arvid Jansons)를 사사했다. 엠마누엘 액스는 맑고 투명한 음색으로 쇼팽과 베토벤에서 최상의 연주를 들려줘 왔다.

제761회 정기연주회는 KBS교향악단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드미트리 키타엔코(Dmitri Kitaenko)의 귀환이 눈길을 끄는 무대다. 12월의 연주회인 만큼 프로그램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다. 키타엔코가 상임지휘자로 있던 2000년대 초반엔 일본의 클래식 애호가들도 KBS교향악단의 연주를 듣기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다.

베토벤 교향곡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규정짓는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2020년 KBS교향악단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내 연주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베토벤 교향곡을 다루고 있다. 더구나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2020년 KBS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는 우리 시대 베토벤 교향곡이란 어떤 모습일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UX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지금 바로 엘앤티 렉서스에서 만나보세요



- 1 강남전시장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2 080-555-3579
- 2 서초전시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7 080-855-3579
- 3 도산전시장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9 080-852-3579
- 4 강서전시장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5 080-866-3579
- 5 수원전시장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144 080-200-3579

- 6 성수서비스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62 080-465-3800
- 7 강서서비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5길 92 080-858-3579
- 8 렉서스 공식 인증 중고차 양재전시장 080-300-3579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317호
- 9 안양서비스 국내 최초 판금 도장 라인업 시스템 구축 2020년 4월 오픈

www.lexuslnt.com



엘앤티 렉서스는 전세계 145개국에서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있는 토요타 통상의 합자회사입니다

L&T LEXUS
SINCE YEAR 2000

開卷有益

개권유익

책을 펼치면 그 안에
이로움이 있다.

서점다운 서점 **영풍문고**

| 영풍문고 전국 지점안내 |

[서울] 종각종로본점 | 스타필드코엑스점 | 강남역점 | 여의도IFC점 | 김포공항대점 | 용대점 | 가산마리옴점 | 강남포스코점 | 용산아이파크점 | 암사리역점 | 삼일포도점 | 미어곶대점 | 사당역점
[인천/경기] 인천타이널점 | 수원NC점 | 의정부신세계점 | 분당오리점 | 죽전아트점 | 스타필드해남점 | 분당서현점 | 스타필드고양점 | 위례점 | 인천스퀘어점 | 스타필드시드위례점 | 구리롯데 아울렛점
[부산/경남] 광복대점 | 부산대점 | 마산대점 | 부산남포점 | 진주점 | 부산해남점 [대구/경북] 포항남구점 | 경산아트점 | 대구대점 | 구미롯데 아울렛점
[광주/전라] 광주타이널점 | 목포타이널점 | 전주타이널점 | 군산롯데 아울렛점 [대전/충청] 대전타이널점 | 청주점 | 세종점 | 유성점 | 천안불당점

2020년 1월 20일, 영풍문고 사당역점 GRAND OPEN! 파스텔시티 지하 2층에서 영풍문고를 만나보세요.

무엇보다도

충격

KBS교향악단
제752회
정기연주회



(지휘)
(Conductor)
(야판 즈베덴)
(Jaap van Zweden)

(첼로)
(Cello)
(키안 솔타니)
(Kian Soltani)

KBS
SYMPHONY
ORCHESTRA

슈만 (Schumann)
/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129 (Cello Concerto in a minor, Op.129)

브람스 (Brahms)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68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2020. 3. 26 (Thu) 20:00
예술의전당
관악사극장

752nd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H www.kbsymphony.org

 facebook.com/kbsymphony

 twitter.com/kbsymphony

 kb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